

家政學에서의 人口教育內容 研究

— 家族關係分野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ontents of Population Education in Home Economics

全南大學校 家庭管理學科

助 教 授 金 順 玉

Dept. of Home Management Chu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Soon-ok Kim

<目 次>

I. 序 論

II. 研究方法

III. 家政學에서의 人口教育 妥當性

IV. 家族關係分野에서의 人口教育 內容

V. 結 論

<Abstract>

For the solution of population problem, a population education is urgently need since family member size(that is population size) will be on the decrease for the reason of changes in family consciousness by population education. The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terdisciplinary, but, above all, home economics is more suitable to the population education.

In this study, the issues are the contents of population education in relation to family relations of home economics.

Those contents are as follows:

1. A change in family consciousness through the value of child
 - 1) Conventional value of child
 - 2) Criticism about conventional value of child
 - 3) Current value of child
 - 4) Desirable number of children
2. A change in family consciousness through the preparation for one's declining years
 - 1) Analysis of periodic family life cycle by number of children
 - 2) Desirable number of children
3. A change in family consciousness through the parental responsibility
 - 1) Mental responsibility
 - 2) Physical responsibility
 - 3) Economic responsibility
4. A change in family consciousnes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 1) Conventional relationship
 - 2) Current relationship

- 3) Desirable relationship
5. A change in family consciousnes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 1) Conventional relationship
 - 2) Current relationship
 - 3) Effects of children on the relationship of husband and wife

By the above contents of population education in the field of family relations of home economics parents will have their deliberate plans and aims.

I. 序 論

人口에 대한 관심은 古代부터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당시의 價値觀에 의해 달랐다. 고대 그리이스의 스파타나 로마에서는 軍事力維持 및 擴大와 政治的 富強의 목적에서 人口增加政策을 모색하였고, 中世社會에서도 종교개혁과 증상주의 증농주의 정책에 의한 宗教的 이유와 勞動力 擴大의 이유를 들어 人口增加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고대 그리이스의 아테네는 도시 중심의 人口過多를 염려하여 人口增加를 制限하였고 現代대부분의 국가들은 人口減少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이 一般化되어 있다¹⁾. 우리는 이러한 歷史的 事實에서 오늘날 문제시되고 있는 人口增加에 대한 抑制가 고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人口增加에 대한 적극적인 問題意識은 18C 후반에 Malthus가 그의 저서 人口論에서 人口의 幾何級數的인 增加가 食糧의 算術級數的인 增加를 상회하여 그 균형이 깨질 때 人間生存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점차 강하게 抗影되기 시작하여 今世紀에 이르러서는 그 심각성이 급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現代는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출생율은 상승하나 사망율은 저하함으로써 人口增加率의 加速化가 이루어지는 반면 食糧과 資源과 生活空間은 限界를 지니고 있으므로 人口問題의 解決과 人口過程의 調節이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人口增加問題가 심각한데 이는 6·25 사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상태는 李朝 500年間에는 多産多死

로 인구발달의 초기단계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의 人口增加率은 극히 미미한 상태로 年평균 0.2%를 기록하여 인구의 절대적 減少의 위기에 직면하여 인구증가촉진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社會的으로 出產力을 장려하게 되었고 이러한 社會的 壓力은 家族制度에 까지 반영되어 多産을 원하게 되었다. 그 후 日帝時代에는 새로운 의학 및 보건제도의 도입과 실시로 사망율이 저하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人口는 增加되었으나 우리나라 인구의 많은 수가 海外移出됨으로서 결국 인구증가율은 높지 못했다. 解放 이후 6·25 사변전까지는 인구발달의 혼란기로서 歸還移動과 避難移動으로 한 때 기록적인 人口增加가 있었으나 6.25 사변 終熄때는 또 다시 死亡率急增, 增出生率減少, 避難民移動등으로 人口가 減少되었다.²⁾ 이러한 歷史的 理由로 우리나라 국민은 多産을 소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에는 급격한 出生率上昇과 死亡率低下로 역사상 가장 높은 2.9%의 人口增加率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人口增加에 대한 問題意識을 싹트게 한 직접적인 동기이기도 하다. 1960년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人口抑制를 장려하여 1960년대에는 出生率의 低下로 人口增加率 減少가 상당히 이루어져 197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1.89%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는 인구증가율 감소가 일단 정지되고 오히려 약간 上昇한 상태이었다. 즉 1970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年평균 1.96%의 인구증가율을 보여주어 현재와 앞으로의 人口增加率 減少政策에 커다란 난관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새로운 人口政策의 必要性을 예시한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의 우리나라는 정

부의 적극적인 政策, 민간단체의 家族計劃事業, 외국의 援助등으로 人口增加率 減少에 상당한 成果를 얻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 아직도 일부 대학생들조차 男兒選好傾向은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당분간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³⁾ 교사대상의 실태조사에서도 認知的 理想子女數는 아들딸 구별없는 2명이나 情意的 態度는 男兒尊重의 전통적인 관념이 아직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⁴⁾ 이와같이 男兒中心의 子女價値觀이 지배적인데다 避妊普及의 限界性때문에 지금까지의 人口政策은 더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社會問題解決의 一翼을 담당하는 教育이 인구정책의 進步的 要因으로 대두되었다. 教育은 人間의 態度 및 價値觀의 變化를 조려하여 社會의 문제를 解決하여 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人口教育은 社會문제의 하나인 人口問題를 해결하고 현재와 미래의 人口過程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價値, 態度, 行動의 合理的인 變化를 통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人口教育을 수강한 후 원하는 자녀수가 감소된 조사통계도 있다.⁵⁾

그러므로 人口教育에 대한 研究는 眞實히 요청된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本 稿에서는 家政學을 통한 人口教育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먼저 家政學에서의 人口教育이 妥當한 이유를 살핀 다음 家政學 中の 家族關係分野에서 취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內容을 力려하도록 하겠다.

II. 研究方法

本 稿는 文獻調查와 필자의 經驗에 근거를 두고 研究되었는데 文獻으로는 1970年代의 國內大學에서의 研究 論文,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人口教育에 관한 研究書, UNESCO Reginal Office in Asia에서의 研究 結果, 家族關係學 關聯文獻등을 참고 하였으며, 필자의 經驗으로는 人口教育에 관한 研修, 대학에서의 人口教育에 관한 講義, 中·고등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人口教育등을 참고하였다.

III. 家政學에서의 人口教育 妥當性

1943년에 Lorimer F.와 Osborn F.는 各급학교 정규교과과정에서 인구에 관한 내용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였고,⁶⁾ 1962년에는 Hauser P.M.과 W.S. Thompson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현대사회에서 심각하게 야기되는 복잡한 問題性에 効果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규학교 교과과정에서 人口教育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⁷⁾ 그 후 人口教育에 대한 研究는 심화되어 1970년 10월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연구협의회에서는 人口教育은 가족, 지역사회 및 세계의 인구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인구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合理的이고 責任있는 態度와 行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⁸⁾ 이어서 1975년 同協議會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人口教育을 정의하였는데 그 內容은 人口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理解를 넓히고, 人口의 未來에 대해 豫見할 수 있고, 適切한 人口問題解決方法을 발전시키는 學習過程이라고 하며 人口教育의 主要觀心을 人口要因의 影響 및 重要성과 개인, 가족, 국가를 위한 有用한 方法의 選擇에 두었다.⁹⁾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副應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부터 學校教育에 人口教育을 반영시키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74년부터는 교육현장인 學校에서 人口教育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人口教育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함은 물론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학생은 그 자신이 멀지않은 장래에 婚姻하게 되어 人口問題에 당면하게 될 것이며, 知識面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므로 理解力이 빠른 것이며, 社會의 잠재적 指導者로서 未來에 人口教育傳達者가 될 수드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實態調查^{10), 11)}에서 대학생들은 人口問題에 대한 意識水準은 높으나 知識水準은 낮다고 판명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人口教育이 더욱 眞實히 필요함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大學에서의 人口教育은 1970年代初기에만 해도 일부 專攻教科目에서 다루어지거나 人口問題만을 중심으로하는 獨立教科目으로 教授된 실

정으로¹²⁾ 참된 의미의 人口教育은 실시되지 못하다가 1974년부터 일부 대학에서 示範教育이 시작되어 현재는 아직 연구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人口教育方案 및 實施에 대한 凡大學의 연구 결과의 一面이 多學問的으로 接近할 必要性이 있다는 것인데 대학에서 接近할 수 있는 主된 학문 분야는 인구학, 인류학, 사회학, 교육학, 지리학, 국사학, 생물학, 가정학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여러 학문분야중 家政學은 연구대상이 家庭生活 및 이와 관련된 環境으로 個人 및 人族의 慾求를 충족시키고 地域社會나 世界의 상황에 家族生活을 調和 適應시켜 個人 및 家族과 社會生活의 改善과 向上 및 福祉를 도모하는 학문인데¹³⁾ 人口教育 역시 人口增加率의 鈍化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人口, 家族 및 國家生活의 質的 向上을 도모하지만 그에 그 목적이 있어 家政學과 人口教育은 그 目的에 있어서 同一한 점이 있으므로 家政學을 통한 人口教育은 매우 効果的인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相關학문분야별로 人口教育科敎課程試案을 작성해놓은 결과에서도 人口에 대한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家政學분야에서의 相關강의시간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 있으며,¹⁴⁾ 黃禎奎도 家政學科는 人口教育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學科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하였다.¹⁵⁾ 그리고 대학생들의 반응조사결과에서도 人口教育의 대명사라 지칭될 수 있는 性教育 및 家族計劃教育은 家政科에서 실시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¹⁶⁾ 大學의 敎授와 學生들의 이러한 견해는 人口教育을 家政學에서 취급함의 妥當性을 더욱 입증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家政學에서 人口教育의 全般을 실시할 수는 없으나 前述한 바와같이 兩分野의 學問的 目的이 유사한 이유로 부분적으로나마 커다란 成果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家政學에서 人口教育을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IV. 家族關係分野에서의

人口教育內容

家政學은 전공영역에 따라 몇개의 分野로 구분되어 지는데 견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

나 李泰賢은 衣生活, 食生活, 住居學, 兒童學, 家族關係學, 家庭經營學, 家政學教育의 7개분야로 구분하였다.¹⁷⁾

家政學의 각 분야는 人口教育의 내용과 연관되어질 수 있으나 本稿에서는 특별히 家族關係分野의 相關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金水日등은 人口教育의 構成要目으로 인구분석, 인구증가와 사회발전, 인구변동과 경제성장, 인구성장과 환경관리, 가족생활과 모자보건, 인간생식을 들고 있다.¹⁸⁾ 이 구성요목중에서 가정학의 家族關係分野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목은 家族生活과 母子保健이라 사료되는 바이므로 이 요목과 집중적으로 관련지어 가족관계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人口教育의 內容을 모색하고자 한다.

家族生活과 母子保健의 要目에서는 人口教育의 目標를 계획성과 책임성 있는 부모 교육에 두고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家系繼承의 手段으로서 男兒尊重, 出產手段으로서 女兒必要, 본인의 永生慾求充足과 家門保存등을 위한 과거의 가족관에서 남녀 구별없이 個人의 人權과 人格의 尊嚴性을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관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⁹⁾ 家族觀의 變化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態度와 行動을 수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動機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가족관의 변화에 중점을 둔 인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김지화등도 人口教育은 家政學分野에서의 취급이 불가피하며 人口教育의 目標를 價值觀의 전환에 둔 조직적인 자료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²⁰⁾ 이러한 人口教育은 과거 가족관에 의한 多數子女의 必要에서 現代家族觀에 의한 小數子女의 計劃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고 小數子女는 결국 人口減少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人口教育이 國家的 次元에서 정책적으로 수행되어 질 때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칫 그 意識이 뚜렷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前述한 바와 같이 家族膨脹의 慾求를 지니고 있는데 정부는 人口抑制政策을 실시하므로써 개인의 人口慣行과 국가의 人口政策間의 不一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個人의 家族生活福祉에 목적을 두는 家族中心의 人口政策

을 수립할 때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人口教育 역시 個人 및 家族的 元次에서 教授되어 질 때 인구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家族觀의 變化를 위한 人口教育의 必要性이 더욱 지대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서 家政學의 家族關係分野에서 다룰 수 있는 人口教育內容으로 다음 5가지 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 A. 子女價値觀을 통한 家族觀의 變化
- B. 老後準備을 통한 家族觀의 變化
- C. 父母義務를 통한 家族觀의 變化
- D. 親子關係를 통한 家族觀의 變化
- E. 夫婦關係를 통한 家族觀의 變化

설정된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A. 제 1 주제 : 子女價値觀을 통한 家族觀의 變化

1. 傳統的 子女價値觀

- 1) 家系를 繼承한다.
- 2) 勞動力이 된다.
- 3) 老後生活의 保障 手段이다.
- 4) 永生慾求 充足 手段이다.
- 5) 家族內에서 婦人의 位置를 確定한다.

2. 傳統的 子女價値觀의 批評

- 1) 男兒選好와 多多益善의 사상에 근본을 두고 있다.
- 2) 각 항목은 현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지고 있다.

① 家系繼承은 아들 딸 구별없이 할 수 있으며 한 자녀로 충분하다. 민법 제984조에 명시된 바를 살펴보면 戶主繼承은 直系卑屬이면 모두 가능하다 다만 順位에 있어 1위가 아들이고 2위가 딸일뿐이다.

② 勞動力에 있어서는 우리의 傳統的인 生業이 零細農業이었기 때문에 多數男子의 강인한 육체적 힘을 요구하였으나 農業의 機械化를 도입함으로써 多數男子의 勞動力은 少數女子의 勞動力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農業人口가 점차 감소되고 商工業活動人口가 증가함

으로써 육체적인 노동력보다는 技術的 精神的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것 또한 男女勞動力의 구별없이 가능하다.

③ 老後生活 保障手段에 대해 생각해보면 擴大 家族制度에 있어서는 親子가 대부분 同種의 직업에 共同으로 종사하면서 자녀가 婚姻하더라도 부모의 지도와 보호하에 생활하였으나 현대에는 산업의 발달로 자신의 能力과 適性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어 자연히 家族의 分散, 移動에 따라 核家族를 形成한다. 따라서 既婚子女와는 別居率이 증가하고 있어 老後의 生活를 子女에게 의탁하기는 어려워져 가고 있다.

④ 永生의 慾求充足 手段에 있어서도 家中心의 生業時代에는 자신의 소망을 子女代에 계승하여 보상의 형태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고 자신의 계속을 느꼈으나 現代에는 親子間에도 個人的인 직업의 선택으로서 子女에게서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⑤ 家族內의 婦人位置에 있어서 전통적인 家族制度에서는 夫婦結合이 家門中心으로 여자는 남편과 婚姻하기 보다는 남편의 家門과 婚姻하여 家門을 繼承할 아들을 낳으므로써 비로서 진정한 家族員이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核家族化로 家門中心의 夫婦結合보다 愛情中心의 夫婦結合이 증가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그리고 家族內 婦人의 位置는 여성자신의 自我意識鼓吹와 民主的 家族生活로 아들의 有無에 상관없이 확고한 것이다.

3. 現代的 子女價値觀

- 1) 個人으로서의 人格을 完成시킨다.
- 2) 社會人으로서 成長시킨다.

4. 適正子女數

傳統的 子女價値觀의 批評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특별히 男兒를 選好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現代的 子女價値觀 具現은 子女가 少數일 때 極大化될 수 있다. 따라서 子女數는 男女兒 구별없는 少數가 바람직하다.

B. 제 2 주제 : 老後準備을 통한 家族觀의 變化

1. 子女數別 家族週期 年數 分析

자신의 老後準備은 심리적 경제적 면에서 스스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것을 家族週期上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家族週期는 H.F. Bigelow 에 의하면 가정형성기, 자녀출산 및 미취학아동기, 초등교육기, 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 자녀의 직업적응기, 경제적

회복기, 은퇴기의 8 단계로 구분되는데,²¹⁾ 子女數別 家族週期 段階의 年數는 다음 <표 1>과 같다.

經濟的 回復期에 老後準備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經濟的 回復期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子女가 1명일 때는 평균 6년, 2명일 때는 평균 3년이지만 3명이상이 되면 없어진다.

2. 適正子女數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老後準備을 위해서는 子女가 2명이하라야 되겠다.

<표 1> 子女數別 家族週期段階 年數

가족수(년)	가정형성기	자녀출산 및 미취학 아동기	초 등 교육기	고 등 교육기	대 학 교육기	자녀의 직업적응기	경제적 회복기	은퇴기
1	2	6	6	6	6	1	6	11
2	2	6	6	6	6	4	3	11
3	2	6	6	6	6	7	0	11

※ 평균 혼인 연령은 男: 27歲, 女: 23歲의 평균인 25歲
 평균 기대 수명은 男: 64歲, 女: 68歲
 평균 자녀 태율은 3년에 기준을 둬.

C. 제 3 주제 : 父母義務를 통한 家族觀의 變化

부모를 義務를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의무로 구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心理的 義務를 통해

부모 자신이 우선 知的, 情緒的, 社會的으로 成熟하여 자녀갓기를 열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態度와 子女를 養育할 수 있는 知識과 技術을 소지하여야 한다. 子女는 個人差를 가지고 일정한 發達過程을 밟아 성장한다. 부모는 이들의 成長慾求를 일반적인 발달심리의 원리와 개인적인 특수성에 입각하여 理解하고 充足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의 成長經驗과 과거의 知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급변하는 지식과 정보수집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子女가 個人的으로 충분히 부모의 養育을 받으려면 부모자신의 새로운 지식 습득시간이 필요하고 자녀개인에게 할애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子

女는 少數이어야 될 것이다.

2. 身體的 義務를 통해

어머니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健康을 지속하여야 한다. 妊娠婦의 건강상태가 不良하면 건강한 아이의 탄생에 기대할 수 없으며 어머니의 不健康이나 死亡은 子女의 健全한 養育에 커다란 障礙가 된다.

그런데 多產母는

- ① 영양섭취가 불량하여 健康狀態가 나빠진다.
 - ② 一般產母에 비해 出產으로 인한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며 특히 빈혈과 그의 당뇨병 자궁암등이 많이 發病한다.
 - ③ 母性死亡率이 높아진다.
 - ④ 子女에게까지 惡影響을 끼쳐 未熟兒誕生, 子女의 健康不良, 높은 發病率과 死亡率을 초래한다.
- 이상을 입증하는 통계자료^{22,23)}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① 가족수를 1~3人, 4~6人, 7~9人, 10~12人, 12人이상으로 구분 비교하였을 때 1日 섭취

열량은 2,180 kcal, 1,750 kcal, 1,620 kcal, 1,600 kcal, 1,500 kcal로 점차 낮아졌으며 1일 단백질 섭취량도 66g, 51g, 45g, 44g, 43g으로 점차 낮아졌다.

② 출산합병증을 多産母群과 比較群으로 비교하면 임신중독증은 각각 14.2%, 4.0%, 태반조기분리증은 각각 2.2%, 0.6%, 전치태반은 각각 1.9%, 0.6%, 태위이상은 각각 9.8%, 4.3%, 산후출혈은 각각 6.1%, 3.8%, 자궁과열은 각각 0.2%, 0.03%로 多産母群이 比較群에 비해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③ 母性死亡率은 出産子女數가 1~2명 일 때 5.9/1,000, 出産子女數가 3~4명일 때 8.9/1,000, 出産子女數가 5~6명일 때 14.5/1,000, 出産子女數가 7명이상일 때 19.6/1,000으로 出産子女數가 많아 질수록 母性死亡率이 높아진다.

④ 嬰兒死亡率을 살펴보기 위하여 형제수를 기준으로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死産率은 각각 11.3/1,000, 15.4/1,000, 18.4/1,000, 22.8/1,000, 32.8/1,000이며 新生兒死亡率은 각각 15.0/1,000, 16.2/1,000, 17.8/1,000, 20.9/1,000, 23.3/1,000이며, 新生兒 이후 嬰兒死亡率은 각각 4.8/1,000, 5.9/1,000, 6.8/1,000, 8.2/1,000, 11.9/1,000로 형제 수가 많을수록 즉 出生順位가 낮을수록 영아사망율이 높다.

母性保健向上으로 전전한 人口資質의 근본을 형성함이 옳은 일인데 어머니의 多産으로 인한 健康不良이 子女의 健康을 不良하게 한다거나 養育上 결점으로 나타나 人口의 質을 저하시키는 것은 부모로서 커다란 실책이 될 것이다.

母性健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²⁴⁾

① 첫 임신은 어머니의 연령이 20세부터 24세사이에 할 것.

② 출산간격은 3년이상을 유지할 것.

③ 35세이후에는 임신하지 말 것

④ 원하지 않는 임신은 하지 말 것.

⑤ 임신수를 적게 할 것.

특히 妊娠數를 적게하여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여야 하겠다.

3. 經濟的 義務를 통해

자녀들의 안전한 衣·食·住生活와 健康維持와 充分한 教育 그리고 文化生活은 父母의 책임이다.

이러한 부모의 책임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子女養育費를 산출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표 2>는 子女 1人 養育費를 산출한 내역인데 養育費目은 필수적인 費目에만 限하였고 養育期間은 男女平均婚姻年齡인 25歲 까지로 하였

<표 2>

子女 1人 養育費

(원)

성장단계구분 비목	학 령 전 (6년)		국 교 (6년)		중 고 교 (6년)		대학이후 25세 까지(7년)		계
	월 총	5,850 421,200	월 총	7,491 539,352	월 총	10,210 735,120	월 총	9,317 782,628	
음 식 불 비	년 총	13,170 79,020	년 총	13,570 81,420	년 총	17,630 105,780	년 총	30,895 216,265	482,485
피 부 비	년 총	9,900 59,400	년 총	12,000 72,000	년 총	46,000 276,000	년 총	170,000 680,000	1,087,400
교 육 비	년 총	1,530 9,180	월 총	300 21,600	월 총	3,750 270,000	월 총	5,000 420,000	720,780
잠 비	계	568,800	계	714,372	계	1,386,900	계	2,098,893	4,768,965

※ 각 금액은 박혜경, 家庭經濟學, 서울: 박영사, 1973, pp.269-301을 참조하여 산출한 것임.

으면 物價는 1973년에 기준을 두었다. <표 2>에 의하면 子女 1人 養育費는 4,768,965원이다. 이 금액을 1980년도 물가지수²⁵⁾로 粗換算하면 16,438,815원이다.

그런데 1980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근로자의 一生所得을 粗算出하면 112,180,320원(=남자일생 경제활동기간 35년(27세~61세)×12개월×1980년 현재전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67,096원²⁶⁾)이다. 일반적으로 所得者는 1家口當 1인이므로 家計所得 112,180,320원의 범위 내에서 子女 1人 養育費 16,438,815원과 부모자신들의 生計費, 그리고 <표 2>에서 제외된 주거비, 광열비등을 고려한다면 子女數는 양육비 부담 가능한 少數로 限定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D. 제 4 주제 : 親子關係를 통한 家族觀의 變化

1. 傳統的인 親子關係^{27~29)}

① 부모는 자녀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교육시키고 생활근거를 만들어 주었다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孝를 요구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 종속적인 입장을 自認하면서 단순히 事親에만 心身을 다하였다.

② 子女에 대한 父母의 權力를 중요시하였다.

2. 現代的인 親子關係

① 子女는 존엄성을 갖는 獨立體로서 부모와 同等한 人格의 關係를 갖는다.

② 子女에 대한 부모의 義務가 강조된다.

3. 바람직한 親子關係

傳統的인 親子關係에서 現代的인 親子關係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親子關係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多數子女 必要意識이 弱화되면서 少數子女 要求로 歸結될 것이다.

E. 제 5 주제 : 夫婦關係를 통한 家族觀의 變化

1. 傳統的인 夫婦關係^{30~32)}

1) 役割構造

男便은 手段의 役割을 담당하고 婦人은 表現的 役割을 담당하여 役割區分이 뚜렷하다.

2) 權力構造

男便支配型이 대부분으로 婦人이 男便에게 예속되는 縱的인 夫婦關係이었다.

3) 家族內 位置

夫婦關係는 父子關係보다 下位이었다. 따라서 夫婦關係의 중요성이 무시되었다.

2. 現代的인 夫婦關係

1) 役割構造

夫婦間에 役割區分이 비교적 덜 뚜렷하고 相互 補充的으로 협조하는 경향이다.

2) 權力構造

夫婦同等型으로 民主的인 夫婦關係를 유지하여 서로의 意思를 존중하는 경향이다.

3) 家族內 位置

夫婦關係의 重要성이 인식되어 夫婦關係는 父子關係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월한 경향이다.

3. 子女가 夫婦關係에 미치는 影響³³⁾

子女가 많을수록

① 夫婦間의 機能區分이 더욱 뚜렷하여 役割과 權力構造面에서 傳統的인 夫婦關係를 유지한다.

② 婦人은 子女養育으로 인하여 家事에만 열중하여야 하고 男便은 경제적 책임이 加重된다.

③ 夫婦間의 滿足度가 낮다.

④ 夫婦間의 性生活에 방해를 받는다.

現代的인 夫婦關係를 더욱 만족스럽게 유지하려면 少數子女를 두어야 함을 上述한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時代的 要請에 의하여 人口教育의 必要性은 지대하다. 人口教育은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모든 학문분야와 관련을 갖고있기 때문에 多學間的 接近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그 중 家政學은 특히 학문의 대상이 家庭生活이며 그 目的이 家庭生活的 質的 向上으로 人口教育의 目的인 人間生活的 質的 向上과 同一하여 人口교육을 실시하기에 가장 適合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家政學에서의 人口教育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으나 그 중 家族觀의 變化를 통한 人口教育이 더욱 效率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家族生活과 資源과의 關係를 통찰함으로써 家族生活的 위협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人口減少意識을 고취시킬 수도 있으나 이는 자칫 個人的 次元에서 인식되기 보다는 國家的 次元에서 인식되어 개인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人口慣行에 보다 적극적인 유도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임상적인 家族計劃實施方法을 통하여 상당히 큰 成果를 얻었으므로 이러한 면의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여기에는 限界性이 나타나고 있다. 즉 家族計劃에 대한 認知率은 92%이나 實踐率은 44% 밖에 되지 않는다.³⁴⁾ 이는 아직도 男兒尊重思想이 현저하여 男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향하고 있는 2,000 년의 人口增加率 0.5%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 자녀 갖기 운동에서 더욱 발전하여 2 자녀이하 갖기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하겠다. 이에 따른 必然的인 變化는 2 男의 男兒選好傾向을 1 男으로, 더 나아가 男女兒 구별 안하는 태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變化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家族觀 특히 男兒에 대한 價値意識에 있어서 큰 轉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現代的 子女價値觀, 自力에 의한 老後準備 必要性 認識, 子女養育에 대한 父母責任遂行의 極大化, 現代的인 親子關係 및 夫婦關係등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家族觀 變化를 중심으로 하는 人口教育은 家政學的인 家族關係分野 專攻時間에 부분적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人口教育만을 위한 특수교과목의 一部內容이 될 수도 있으며, 特講의 형식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人口教育의 教授結果는 家庭生活에 대한 洞察力을 길러주어 부모로서의 責任을 認識하도록 하게 할 것이며 따라서 計劃性있는 父母가 되게 하리라 생각한다.

本稿에서는 家族關係分野만을 人口教育과 관련지어 다루었으나 家政學的인 他分野와 관련된 內容도 모색하여 人口教育의 極大化를 꾀하고 결과적으로 家庭生活의 質的向上을 도모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박구상, 人口問題와 人口政策, 서울; 한얼문고, 1977, pp.40-54.
2. 권태환 한초연編, 人口와 生活環境,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77, pp.3-6.
3. 안규철, 교직과정에서의 인구교육실천 연구, 인구교육사업보고, 전남대학교, 1979. 2, p.28.
4. 임주현, 効率的인 人口教育方案, 교육연구 제 6집, 전남대학교, 1980, pp.160-162.
5. 김혜선·조희선, 女大生の 家庭環境과 結婚生活計劃과의 關係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7권 4호, 1979. 12, p.113, 재인용.
6. 金蘭洙·鄭泰東, 大學人口教育計劃樹立方案研究, 연세대학교, 1976, p.6. 재인용.
7. 고려대학교 인구교육위원회편, 人口爆發과 未來,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8, pp.124-126.
8. UNESCO, Population and Family Education, Bangkok; UNESCO Regional Office For Education in Asia, 1971, p.13.
9. UNESCO, Population Education in Asia; Orientation to Population Education, Bangkok; UNESCO Regional Office for Education in Asia, 1975, pp.4-11.
10. 박정순, 인구 및 가족계획교육의식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13권 1호, 1975. 3, pp.41-53.
11. 金蘭洙·鄭泰東, 전제서.
12. 양재모,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인구교육의 현황,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973, pp.1-17.
13. 金秉高外, 家政學原論, 서울; 수학사, 1975, pp.16-26.
14. 大學의 人口教育教科課程試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976.
15. 黃禎奎, 大學의 人口教育實施可能性에 대한 探索의 研究, 고려대학교 인구교육연구회, 1976, p.23.
16. 박정순, 전제서, pp.48-49.
17. 이태현, 家政學原論,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6, pp.208-282.
18. 김수일의, 人口教育資料源開發構案에 관한 研究, 한국교육개발원, 1976. 7, p.14.
19. 김수일의, 家族生活과 母子保健, 한국교육개

- 발원, 1976. 9, p.9, pp.58-59.
20. 김지화·문수재, 家政學教育 領域에서의 人口 教育 문제에 관한 調査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9권 3호, 1981. 9, pp.100-101.
 21. 유영주, 家族關係學, 서울; 수학사, 1975, pp.35-44.
 22. UNESCO, Population Education in Asia; Population, Bangkok; UNESCO Regional Office for Education in Asia, 1975, pp. 161-166.
 23. 이화여자대학교 인구교육위원회, 人口와 未來, 1975, pp.214-223.
 24. UNESCO, Population Education in Asia; Population, Op. Cit., p.165.
 25. 말가지수 : 1975년이 기준년도로 100일 때 1973년은 64.2, 1980년은 221.3임.
 26. 경제기획원, 都市家計年報(1980), 1981.
 27. 이광규,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서울; 일지사, 1975, pp.172-182.
 28. 이호재, 家族과 社會, 서울; 민조사, 1978, pp.242-296.
 29. 최재석, 韓國家族研究, 서울; 민중서관, 1970, pp.221-238.
 30. 김주수, 家族關係學, 서울; 진명문화사, 1973, pp.149-164.
 31. 유영주, 전제서, pp.153-176.
 32. 김두헌,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pp.325-335.
 33. James T. Fawcett,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Population, 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pp.189-194.
 34. 대한가족계획협회, 人口 및 家族計劃, 1977, p.43.